

SEED \

씨앗

\ 種子

본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은 산림식물의 종자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15배~350배 확대·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흑백으로 사진이 찍히며,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의 후보정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신비로운 종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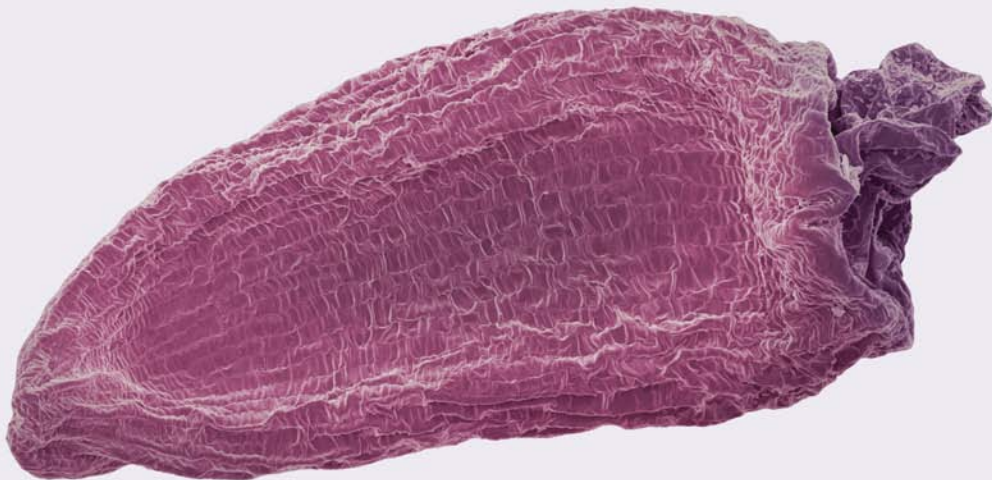
씨앗! 작은 우주...

시작의 설레임을 먹고
씨앗이 눈을 뜬다.

• 미나리아재비과 / 여러해살이풀
복과 장수를 상징해 복수초라 하며 이른 봄 눈속에서도
꽃을 피워 얼음새꽃, 설련화로 불린다.
종자는 개미에 의해 옮겨지는데
멀리 이동하지 않아 한자리에서 군락을 이룬다.

02 알레지

Erythronium japonicum (Baker) Decne.



농부아사 침궤종자 農夫餓死 枕厥種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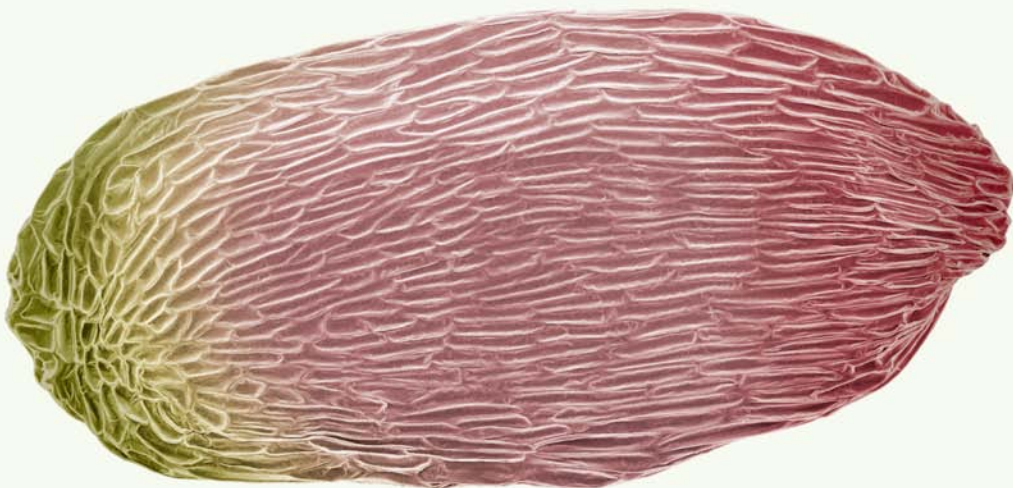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정약용

• 백합과 / 여러해살이풀

산지에 자라며 잎에 알록무늬가 있어 알레지라 한다.
씨방이 아래로 향해 쏟아지면 씨앗에 개미유충과 같은 냄새가
나서 개미가 씨앗을 옮겨기도록 유인해 이동을 돕는다.

03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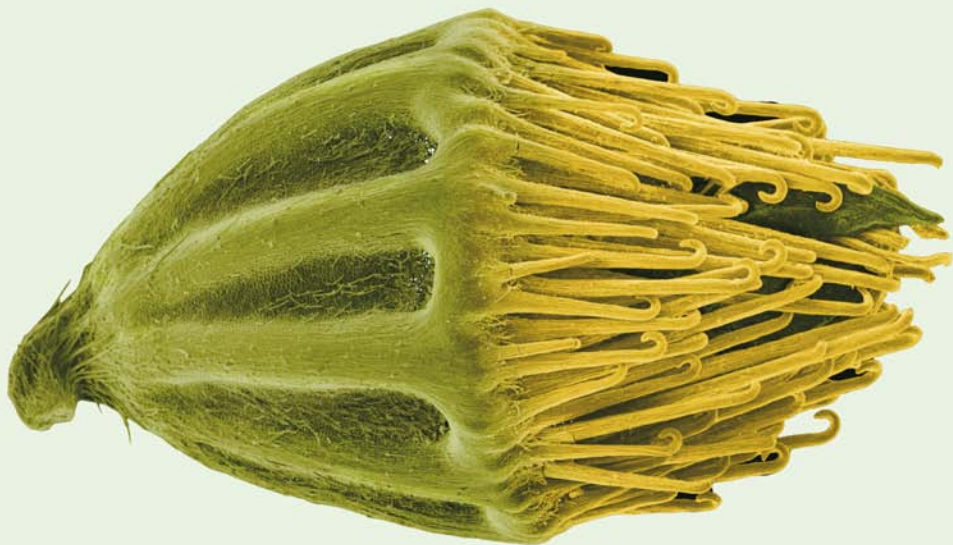


세앗을 손에 쥐면
생명이 북적거린다. -하이쿠: 소조

•진달래과 / 낙엽활엽관목
산지에서 자라며 진달래보다 시원한 곳을 좋아하고
꽃에는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다. 열매는 납작한
미립종자라 비람과 같은 충격에 쉽게 산파된다.

04 짚신나물

Agrimonia pilosa Ledeb.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 장미과 / 여러해살이풀

땅속줄기가 발달한 산지 식물로 대기오염에 민감한 지표성 식물이다. 씨앗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 동물의 몸에 달라붙거나 짚신에 붙어 이동한다.

05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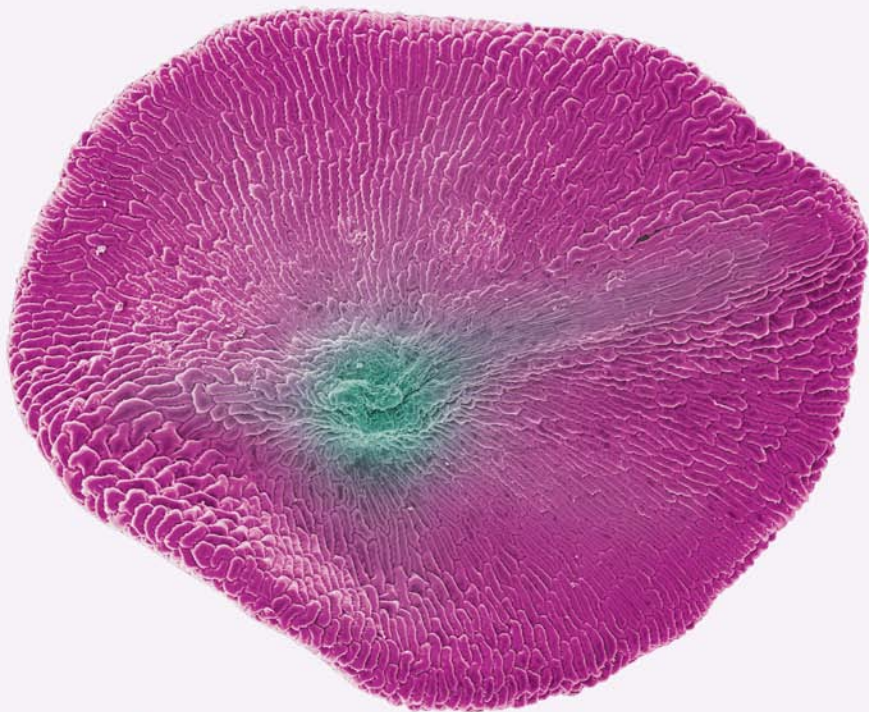


솔씨 한알 물어다
거리봉은 던졌더니
낙락장송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 지신밟기 중

*현삼과 / 낙엽활엽교목
한국특산식물로 침오동나무와 달리 꽃부리에 자주색 줄이 없다. 나무중 가장 가벼워 뗏목 재료나 진동을 이용한 악기재로 활용된다. 새깃은 바람을 이용해 이동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06 패랭이꽃

Dianthus chinensis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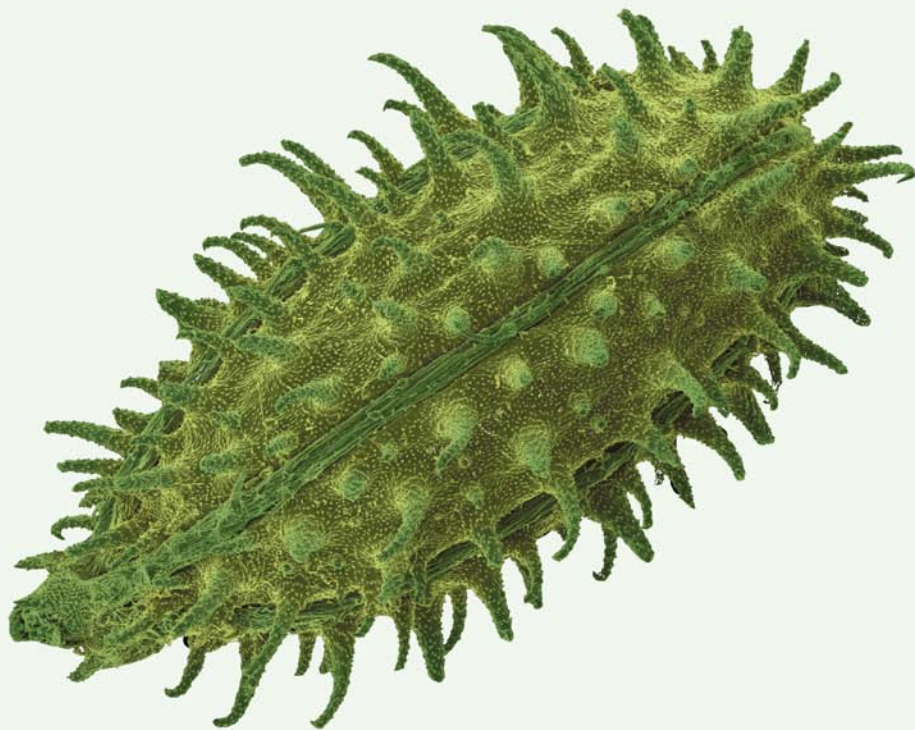
동물은 새끼를 낳고
식물은 씨앗을 남긴다.

• 석죽과 / 여러해살이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자갈밭, 모래밭에서도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의 식물로 옛날 모자 패랭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퍼즐을 맞추듯 짜맞춰진 씨앗은 바람에 날려 이동한다.

07 사상자

Torilis japonica (Houtt.) DC.



세앗은
사물의 역사를 품고 있다.

•산형과 / 두해살이풀

풀밭에서 자라며 밤이 이 풀아래 누워 열매를 먹는다 하여 뱀도랏이라 불리기도 한다. 열매에 짧은 가시같은 털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달라 붙어 이동한다.

08 참바위취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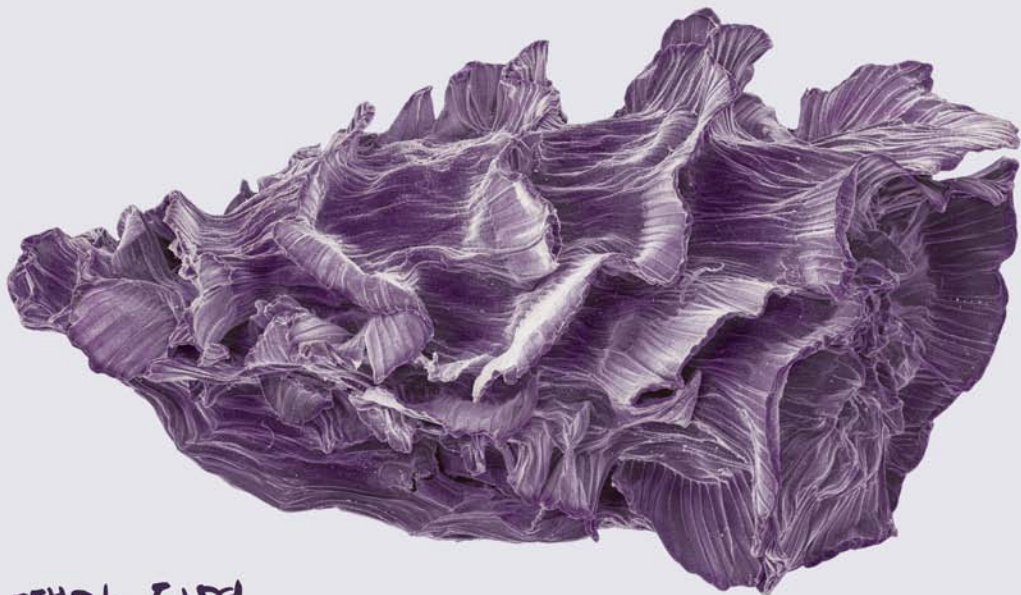


얼매는 흔들려야 떨어지고
세앗은 멍춰야 피어난다. - 파란잘리

•범의귀과 / 여러해살이풀
한국특산식물로 높은 산 고지대나 계곡의 바위 길에
붙어 드물게 자란다. 종자에는 바위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돌기가 있는 10개의 능선이 있다.

09 세뿔투구꽃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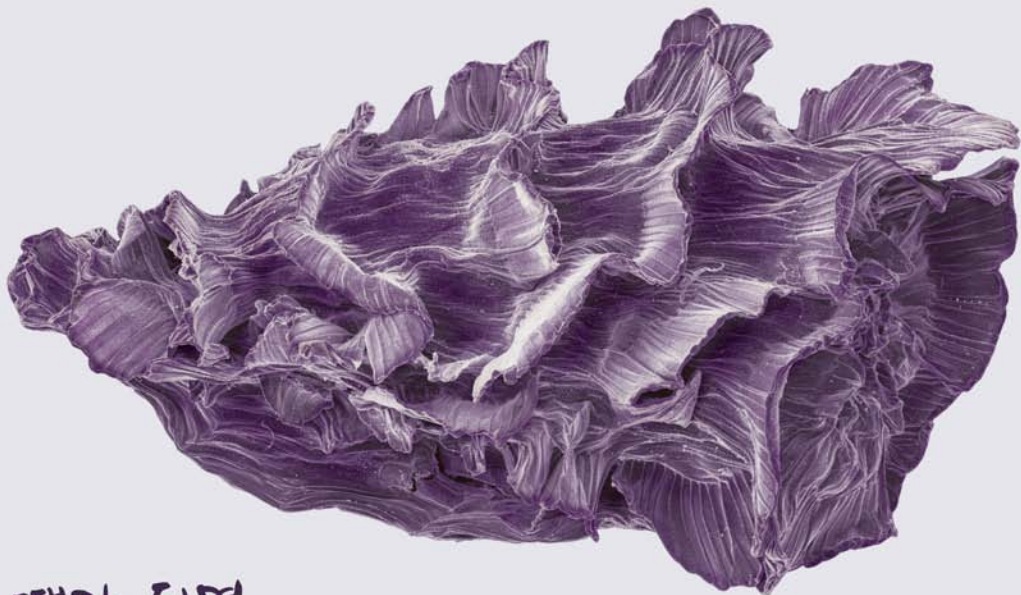


때가 되면
세잎은 식물의
모체를 떠나간다.

• 미나리아재비과 / 여러해살이풀
한국특산식물로 잎모양이 삼각형의 뿔처럼 생겼고
꽃잎처럼 생긴 꽃받침이 투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매는 봉선이 터지면서 여러 개의 씨가 흩어진다.

09 세뿔투구꽃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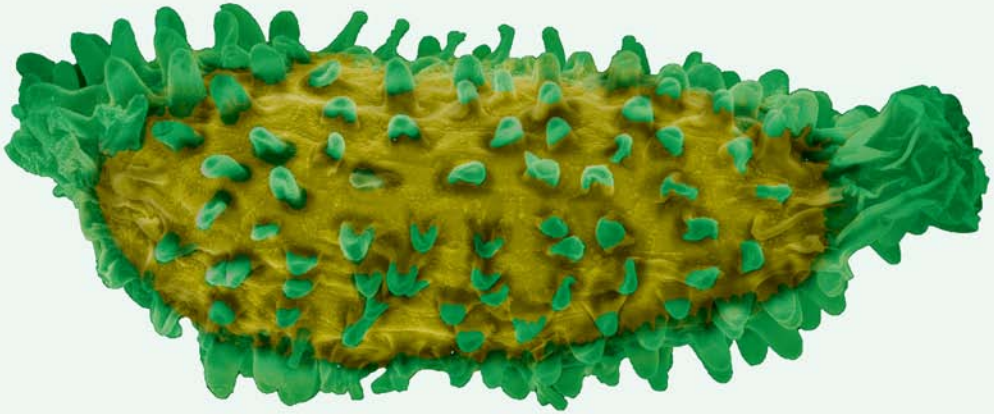


때가 되면
세잎은 식물의
모체를 떠나간다.

• 미나리아재비과 / 여러해살이풀
한국특산식물로 잎모양이 삼각형의 뿔처럼 생겼고
꽃잎처럼 생긴 꽃받침이 투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매는 봉선이 터지면서 여러 개의 씨가 흩어진다.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Pursh



꽃은 사라져도
씨앗은 남는다. -칼릴 지브란

•돌나물과 / 여러해살이풀
습지식물로 꽃가지가 낙지다리처럼 생겼고, 꽃과 열매가
빨판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매가 벌어
지면서 돌기가 있는 초미립 중자가 주변에 흩날린다.

12 겨울딸기

Rubus buergeri Miq.



석과불식 碩果不食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 -주역

• 장미과 / 상록덩굴성 반관목

겨울에 열매가 별갈게 익어서 겨울딸기라 한다. 제주도에 자생하며 숲 속에서 상록 덩굴로 지낸다. 씨앗이 뽕뽕히 모여 있는 집합열매로 동물이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이동된다.